韓불자, 몽골 사상 첫 연등회 개최 '눈길'

세계불교법왕청 등 5월 23일 몽골 울란바토르서 연등행렬

5월 20~24일 한·몽골 교류 일환
몽골 간단사 참배, 나무심기도
23일 울란바토르서 연희 선봬
목탁 스님 "부처님 세상 이루자"
바트볼트 라마 "韓 관심에 감사"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한국의 연등회 연등행렬 문화가 몽골에도 자리잡아,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는 불자들의 교류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세계불교법왕청 중앙정부 등으로 구성된 한국불교대표단(총재 목탁 스님)이 5월 23일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사상 첫 연등회 연등행렬을 진행했다. 몽골의 2023년 부처님오신날 국경일 지정 이후 처음으로 진행된 이번 연등행렬에는 세계불교법왕청 중앙정부 총재 목탁 스님을 비롯해 자운 스님, 월암 스님, 청명 스님, 정인 스님 등 불교계 대표 스님들과 국제붓다자비평화봉사단 소속 회원불자, 바트볼트 라마 몽골불교협회 신임회장 등 몽골불교계 스님과 불자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연등회 연등행렬은 세계불교법왕청 중앙정부가 몽골정부, 몽골불교협회, 인도불교협회와 함께 5월 20~24일 진행한 희망의 나무심기 프로젝트 및 붓다성발·치아사리 봉안식의 일환으로 봉행됐다. 한국불교대표단은 5월 20일 몽골에 입국해 몽골 간단사 참배와 몽골왕궁 환영식을 연 데 이어 5월 22일 희망의 나무심기 식수식 및 기금전달, 봉안대법회, 몽골불교대학 학위수여식, 5월 23일 연등행렬 및 연등축제를 진행했다.

축제 현장에서는 국제붓다자비평화봉사단 소속 불자들이 연희무용 등을 선보여 몽골 언론사들의 관심을 사로잡았다.



세계불교법왕청 중앙정부 총재 목탁 스님(사진 오른쪽 두번째)과 몽골불교협회 신임회장 바트볼트 라마(사진 오른쪽 첫번째) 등 한국과 몽골불자들이 5월 23일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시 광장에서 사상 첫 연등회 연등행렬을 진행하고 있다.



세계불교법왕청 총재 목탁 스님이 희망의 나무심기 프로젝트 식수를 진행하고 있다. 울란바토르시 5만평 대지에 생명의 나무를 심는 행사다.

몽골에서 열린 첫 연등회에서 한국 대표단을 이끈 목탁 스님은 "인류를 위해 많은 일을 하고 계신 세계지도자들과 불교도들이 좋은 인연, 아름다운 인연을 이어가 부처님 세상을 이뤄보자"며 "양적인 성장보다 질적인 성장을 위해 새로운 마음으로 각자 의무와 책임을 다하자. 후대의 평가를 무서워할 줄 아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고 봉축사를 낭독했다. 스님은 이어 "상호협력과 지원, 교류를 통해 신뢰와 믿음이 함께 할 때 화합과 평등, 포용이 이뤄질 것이며 더 나아가 지구촌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는 자비 가득한 부처님 세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트볼트 라마는 "평화가 가득한 부처님 세상이 한국과 몽골 불자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며 "이번 한국불자들의 애정어린 관심으로 한국과 몽골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화답했다.

한편, 세계불교법왕청 중앙정부는 지난 3월 몽골불교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희망의 나무심기운동, 불교교류, 몽골대학 유학 주선, 몽골 간호사 교육, 한·몽골 기업 교류 지원 등에 협력키로 했다. 게다가 협약의 일환으로 몽골정부로부터 울란바토르시 날라이흐구5군 '나르트 엥게르' 지역의 5만평 대지를 기증받아 현재 나무심기 운동을 전개 중이다. 희망의 나무심기 동참 02-733-5665.

선운사불교대 수계법회

고창 선운사불교대학(학장 경우 스님, 선운사 주지)이 신입생과 선운사 신도회 임원을 대상으로 수계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선운사불교대학은 5월 25일 선운사 대적광전에서 삼귀의계와 오계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수계식에서 전계사 경우 스님으로부터 삼귀의계와 오계를 수지한 선운사불교대학 재학생 50여 명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도반들과 함께 성실하게 신행활동에 나서 참불자가 될 것을 서원했다.

경우 스님은 "여러분들은 이제 진정한 부처님의 제자가 됐다"며 "일상생활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모범적인 불자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美스타셰프 'K-불교' 매력에 빠지다

에릭 리퍼트 백양사 템플스테이
정관 스님 마련 만찬 참여하기도

미국의 스타셰프 에릭 리퍼트가 전남 장성 백양사를 찾아 템플스테이와 사찰음식을 체험했다.

뉴욕의 미슐렝 3스타 요리사인 에릭 리퍼트는 5월 18일부터 1박 2일간 조계종 제18교구 본사인 백양사(주지 무공 스님)에서 템플스테이를 체험하고 산내 암자인 천진암에서 사찰음식 전문가 정관 스님이 마련한 사찰음식 만찬에 참여했다.

백양사에 도착한 에릭 리퍼트는 이날 조슈아 데이비드 스타인(작가), 나디아 조(음식 칼럼니스트)와 함께 백양사 주지 무공 스님과 차담을 가졌다.

에릭 리퍼트는 "식당 손님들에게 채식을 더 많이 권유하게 됐고, 이 음식을 먹고 좋은 행동, 좋은 마음을 갖기를 바란다. 음식을 배우는 제자들에게도 좋은 음식을 먹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요리해야, 먹고 간 사람들이 좋은 행동을 할 수 있다고 일러준다"고 평소 음식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에릭 리퍼트 일행과 백양사 주지 무공 스님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무공 스님은 "사찰에서는 이 음식이 만들어지기까지 수많은 사람의 수고와 인연에 감사한다. 이 음식을 먹고 수행을 잘하는 것이 이 모든 은혜를 갚는 방법"이라고 의미를 전했다.

천진암 정관 스님이 직접 마련한 사찰음식 만찬도 이어졌다.

만찬에는 무공 스님,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만당 스님, 에릭 리퍼트 일행과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한종 장성군수, 고재진 장성군의회 의장과 도의원, 군의원 등이 동참했다.

만당 스님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에릭 리퍼트의 템플스테이를 체험은 한국사찰음식 문화의 세계화를 위해 좋은 초석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날 사찰음식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만찬에는 완두콩찜, 마찜, 두릅전, 연근전, 표고버섯조청조림, 감말랭이, 죽순구이, 다양한 나물과 감자죽순밥 등이 준비됐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광주불교계, 5·18 추모음악회

5 · 18민주항쟁 44주년 맞아
5월 24일, 광주 원각사에서



광주 불교인들이 1980년 5월 광주를 추모하는 행사를 열었다.

광주불교연합회(회장 소운 스님)는 광주전남불교NGO연대(상임 대표 도제 스님)와 함께 5월 24일 광주 원각사에서 '꽃진 자리 피어나는 희망, 오월 음악회'를 개최하고 제44주년을 맞은 5·18민중항쟁의 의미를 되새기는 불교행사를 진행했다.〈사진〉

이날 음악회에는 원각사 회주 현고 스님, 소운 스님, 도제 스님, 원효사 주지 해청 스님과 사부대중 200여 명이 지광 김동수 열사를 비롯해 5월 광주에서 활동한 불교인들을 추모했다.

소운 스님은 "당시 전쟁과 같은 폭력, 살상에 맞서 시민들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나섰고, 탄압, 폭력 왜곡과 거짓에 대해 분연히 나서 독재 폭력 정권 타도의 깃발을 들었다"며 "당시 많은 시민의 노력이 있었지만 특히 김동수 열사는 보살의 신념과 실천 모습을 보여준 이 시대의 선지식으로, 마치 보현보살을 보는 듯하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5·18광주민중항쟁을 대표하는 불교계 인사인 지광 김동수 열사 추모문화제도 5월 26일 장성군 서삼면 임곡 마을회관 앞에서 개최됐다. 이곳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전남지부장으로 5·18 광주민중항쟁 당시 마지막까지 전남장성군 서삼면은 도청을 사수하다 계엄군의 총탄에 산화한 김동수 열사(당시 조선대 전자공학과 3년) 생가가 자리한 곳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